

24년 11월 목회일정

10.21~11.16	공식심방(재정심방포함)
17일(주일)	감사주일(감사나무만들기-한나회)
	성찬연령별모임
24일(주일)	연합당회(장로+집사)
2일(토)	부산중부노회 어린이대회(온천교회당)
5일(화)	노회 고시부(서창교회당)
29일(금)	임시노회(반송교회당)
19일(화)	고신목회자찬양단 모임(하단교회당)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구제목적(신정민선교사 곡성연화교회 부산장 애인전도협회)
 - 성찬입회교육** / 김성재 이은수학생
 - 감사주일** / 감사주일 오후순서입니다.
점식식사 - 성찬연령별 모여 식사합니다.
13:30-15:00 성찬연령별 모임(별지참조)
-15:30 성찬모임기도회(당회인도)
-16:30 감사나무 만들기(한나회 주회)
 - 공식심방** / 심방이 미뤄진 가정은 새로운 일정을 정하여 당회에 알려 주세요.
 - 이명** / 배성은 김신혜가정(울산남부노회 울산한빛교회)
서봉희성도(열린문교회 원적 복귀 후 울산한빛교회로)
 - 연합당회** / 다음 주일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장로+집사)
 - 목사동정** / 19일(화) 고신목회자찬양단 모임(하단교회당)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1월	12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헌	박지영	강정희
안내	김민혁	노주혜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1.17.(제28-46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66:1-2(교송)

인도자 :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회 중 :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시편89편(9-11)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주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다같이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40편(1-2)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시19:1-14, 롬10:17-18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9편

설교 ↓ 설교자

영광스러운 계시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시편133편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19편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성찬기도회		오후14:30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사 도 신 경				아침기도회	
찬 송		찬송44장(1-2)		월~금 6시(교회밴드)	
기 도		인도자		요한복음 묵상	
본 문		살후 2:13-14		인도 : 최성림 목사	
설 교		[성도들이 감사할 이유]		수요기도회	
찬 송(헌금)		찬송44장(3-4)		수요일 20시(예배당)	
주 기 도 문		다같이		[말씀·고백·삽]	
주제 :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1.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2. 성도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3. 감사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인도 : 양주동 강도사	
				* 김해(월, 20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주간성경읽기	
				주일	아 1-3 딤펢 3
				월	아 4-5 딤펢 4
				화	아 6-8 딤펢 5
				수	대하10-12 딤펢 6
				목	대하13-15 딤펢 1
				금	대하16-17 딤펢 2
				토	대하18-19 딤펢 3
				이야기성경	
				구	80. 느부갓네살왕의 꿈
					81. 불가무에 던져진 세친구
				신	51.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영광스러운 계시)	
1.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기를	
2.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살피서 죄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3. 참 믿음으로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1.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옛사람의 행실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2. 가족의 독일거주를 위한 동반비자 발급이 순전히 이뤄져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3. 총회선교부를 통한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환경이 호전되어 새로운 사역에는 변화가 없도록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목사·고신)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오늘 감사주일오후 모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점심식사(~13:30)는 성찬연령별로 모여서 합니다.
 - 1) 바나바회 – 탁구장 2) 뽕뽕회 – 식당 작은 방 3) 한나회 – 식당(A)
 - 4) 청년회 – 교육관 1 5) 맛디아회 – 탁구장 6) 유초등부 – 식당(B)
- 점심식사 후 설거지는 연령별로 그릇을 모아 한 명이 대표로 합니다.
- 성찬연령별모임(~15:00)은 식사를 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 1) 자신의 감사제목카드를 만듭니다.
 - (1) 개인별 (2) 가정별 – 부부 (3) 기관별 - 기관대표 (4) 교회 - 당회
 - 2) 각 기관별 내년계획을 의논하셔서 대표가 별지에 기록해 제출합니다.
- 각 기관별 계획에서 의논할 일
 - 1) 기관의 대표(조직)선정
 - 2) 기관의 정기모임
 - 3) 기관이 내년에 하고 싶은 계획(각 하나씩)
 - (1) 연 계획
 - (2) 학기 계획
 - (3) 월 계획
 - 4) 교회행사 중 말을 프로그램(새로운 계획도 가능)
 - (1) 전, 후반기 야외 소풍 중
 - (2) 전교인 여름성경캠프
 - (3) 기타 프로그램
 - 5) 듣고 싶은 설교나 강의의 주제나 영역
 - (1) 주제
 - (2) 영역(성경 교리 교회사 일상등...)
 - (3) 형식(설교 강의 영상 책 등...)
 - (4) 추천강사
 - 6) 우리 기관의 이웃사랑 실천
 - 7) 교회(당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
- 성찬모임기도회(~15:30)를 위해 예배당으로 모여주세요.
- 감사나무만들기(~16:30)는 한나회에서 진행합니다.
- 만들어진 감사나무열매는 올해 말까지 열려있을 것입니다.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1월17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78장
성경봉독	시 19:1-14, 롬 10:17-18
설 교	영광스러운 계시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의 계시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1. 하늘이 전하는 계시

하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지만, 하늘과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중에 하늘은 단연 뛰어난 작품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늘은 장엄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하늘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이시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가진 장엄함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데 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롬 1:20). 비록 인간의 언어처럼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모든 이의 눈에는 하늘과 창조세계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과 밤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6절을 한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6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1절에만). 그러나 7-12절에서는 “야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야웨는 언약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야웨에 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보편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하늘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구원 받은 언약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변화를 보고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묵상하고서 ‘나의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 말씀이 전하는 계시

4-6절은 ‘해’에게 집중합니다. 하늘을 밝게 채우는 ‘해’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리고 6절 후반절에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며 갑자기 하늘과 해에 대한 이야기가 그칩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야웨의 율법”으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6절에서 “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2절의 “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숨다’, ‘피하다’,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풀어서 보자면,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허물(죄악)에 대해서도 피할 수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듯이 자기 죄책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태양의 이미지를 야웨의 율법에 가지고 옵니다. 야웨의 율법은 사람의 죄악을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야웨의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이 피조세계를 회복하듯 야웨의 율법도 죽어있던 죄인을 새롭게 합니다. 야웨의 율법은 사람의 죄악을 깨닫게 하지만, 또한 그 죄악에서 건져줍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강하게 내리쬘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는 큰 반석으로 가야 합니다. 반석은 햇볕을 피할 그늘을 제공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14절)이라고 고백합니다. 야웨 하나님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구원해주실 반석이 되십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언약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연만물을 통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건 “야웨의 말씀”입니다. 특히 “야웨”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야웨”라 부를 수 있는 언약백성만이 진정한 창조의 의미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이나 태양을 숭배할 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야웨의 율법”도 그러합니다. 야웨의 율법을 귀로 들어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야웨라 부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언약백성이 아니기에 율법을 들어도, “야웨의 율법”인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언약백성만이 창조의 의미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웨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합니다.

시인이 하늘과 해를 보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정말로 야웨의 율법이 주는 유익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야웨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주는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송의 제사를 기쁘게 열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